

‘월드 챔피언’ 태극소녀들이 돌아왔다



변방의 무명선수로 떠났던 태극소녀들이 월드 챔피언이 돼 돌아왔다. 2010 FIFA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한국 대표팀이 28일 오후 귀국,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표팀은 한국축구 사상 남녀를 통틀어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새 역사를 썼다.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민주 경선룰 ‘누더기’

서구청장 후보 여성 가산점 옥신각신

오늘 여론조사

민주당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김선옥 예비후보에 대한 여성 가산점 부여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성 가산점의 문제점 등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컷오프 탈락 후보를 다시 압축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 ‘누더기 경선’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일부 예비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김선옥 예비후보에 대한 여성 가산점 부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일부 비대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데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9일 오전 비대위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웅진, 박해자 예비후보는 이미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김선옥 예비 후보에게 컷오프 15%에 이어 경선에서도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비대위에 참석해 김선옥 예비후보에 부여되는 여성 가산점 문제를 제기한 김영진 의원(서구)도 “이미 시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후보로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김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이 아니다”며 “당헌 당규에 따라 서구청장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김 예비후보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경 사무총장 등 일부 비대위원들은 김선옥 예비 후보에 대한 여성 가산점 취소 주장에 대해 ‘여성 배려’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선관위 구성을 통한 가산점 추소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당헌 50%+서구민 50%’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여론조사는 2개의 조사기관을 통해 당원과 서구민 700명씩 총 2800명을 상대로 실시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핵심현안 예산삭감 쇼크

F1·광주야구장·여수박람회 등 전액 깎이거나 반토막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F1(포틀러원) 코리아그랑프리 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도 대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요구한 야구장 건립사업비와 문화콘텐츠(CT)기술연구원 설립비 등도 반영되지 못해 이들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양 시·도가 요구한 도로 건설사업비

도 대부분이 삭감돼 내년도 도로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국비 지원금은 총 119건에 1조3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인 1조2444억원에 비해 11%인 137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광주시

가 새야구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요구한 1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는 무등경기장 일원에 1000억원을 들여 개방형 야구장을 짓기로 하고 용역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비 42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연구원은 게임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기술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으로, 지역 문화산업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이밖에 쌀과 금 등을 거래하는 동북아상품거래소 건립사업비 30억원, 폐기물 전처리시설사업비 4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전남도는 총 6조9804억원의 예산이 반영, 지난해 반영된 정부 예산안에 비해 11%인 7542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핵심 현안사업인 F1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는 애초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위해 모두 ▲F1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1억1500만원 ▲F1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비 19억2500만원 ▲F1 대회 관람객서비스 문화행사비 14억원 ▲F1 대회장 운영비 지원비 15억5000만원 등 60억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전남도는 애초 내년 대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200억원을 예상하고 이 가운데 1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조율 과정에서 60억원으로 수정, 편성했는데도 삭감됐다. 전남도는 올해 준공되는 대회 경기장 건설비 312억도 여지껏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SOC 예산도 당초 요청했던 1조9559억원 가운데 1조5875억원만 반영돼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희기·김지혜 기자 redplane@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교수 성과연봉제 2013년 시행...전남대 법인화 논의 박차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2년 빨라져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서울대·인전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 등 광주·전남지

역 국립대학들도 법인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일정에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실동근 교과부 1차관은 이날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립대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4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안을 보면 우선 그동안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확장 직선제는 대학을 선거와 정치 바람에 휩쓸리게 해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단과대 이기주의를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개 교육대도 그동안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교내 구성원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대두함에 따라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되 후보자들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부산대·경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법인화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조만간 ‘법인화 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한 교과부 방침에 따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임명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성과연봉제는 신규 임용교원의 경우 2011년, 비정년교원은 2012년, 2013년에는 정년 교원을 포함한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시행은 교과부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법인화 문제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관련 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

北, 김정은에 ‘대장’ 칭호

북한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3대 권력 세습체제’ 구축에 공식 돌입했다. <관련기사 5면> 북한은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며 이어,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북한 관영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어서 앞으로 김정은에 대한 당 공식적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3대 세습체제 구축으로 내부 체제정비를 일단락지은 뒤 대남·대미관계와 6자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의 ‘평양발 새판짜기’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때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셨다”면서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노동당은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라디오)가 전했다. 이를 대체는 오후 2시에 맞춰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의 한결 같은 의사와 열원을 담아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경축 자율형 사립고 지정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전국 최상위 토포스 제단
전교생 수능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모든 졸업생 장학금 제도
2009년 교과부 선정 영어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통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촉촉함이 깊어져요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언제부터가 매일 바르던 보습제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과 만나보세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보다 생명력 넘치는 깊은 바다의 마린 에너지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 피부 깊숙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바를수록 깊어지는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 마린 플라센타* 콤플렉스를 함유하여 피부에 닿는 순간, 미세입자가 풍부한 해양생물추출수와 심해의 보습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 피부 구성성분과 유사한 탄수화물 복합체, 지질성분 등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입니다.

LIRIKOS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이력을 통해 알맞은 제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광주점] 무등동점 062-225-5056 / 자갈치점 062-222-5005 / 상무점 062-228-8048 / 중앙점 062-573-8802 / 광주송정점 062-645-6005 [전남점] 목포지사 061-205-2007 / 순천지사 061-222-0155 / 여수지사 061-632-0614 [전북권] 군산지사 063-468-3173 / 전주지사 063-286-0636 / 호남제일지사 063-277-2010